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란 편집: 양계웅

2008년 제3차 청지기훈련

일시 : 10월 24일(금), 저녁 7시
주제 : 하나님이 거하시실 처소(에베소서 2:22)
대상 : 모든 성도들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2008년 마지막 청지기훈련이 10월 24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습니다. 제1차 청지기훈련 '교회의 방패와 상급' (창 15:1), 제2차 청지기훈련 '두 세계' (요 18:36)를 통해서 누렸던 은총이 이번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실 처소' (엢 2:22)라는 주제를 가지고 위임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청지기훈련은 일부 직분자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축복과 성공전략을 배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말씀전지입니다. 특히 주제성구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엢 2:22)는 말씀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믿음의 종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실 처소가 된다는 것은 감히 죄인들이 상상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비밀이 10월 24일 저녁에 선포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골 1:9) 현실의 짐에 짓눌려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이웃들에게 알리십시오. 다음을 기약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쁜 일상일지라도 청지기훈련 참석을 가장 우선하는 믿음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저녁예배 시간 변경

이번 주 수요일(8일)부터 수요일(22일) 금요찬양집회 시간이
저녁 7시로 변경됩니다.
(금요일 기도원집회는 저녁 10시 30분으로 변경)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앞에 걸려서 막게 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못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면 원망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심이 분명하다."라고 믿게 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 믿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골 2:6) 그러므로 그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롬 14:23; 히 11:6)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과 삶 (금요찬양집회)

14. 완전히 의존함에 있는 자유

5:30, 36, 12:49)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요 14:16~20)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완전한 믿음의 삶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다. 즉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사랑하므로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므로 순종하게 되는 삶이다. (마 22:37) 이 계명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뿐이시다. (요 5:30; 눅 22:42)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순종을 강조하며 가르쳤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모르면 결코 온전한 순종은 없다. (롬 7:15)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선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감정을 의존하게 되면 좌절감과 죄책감만 생긴다. 믿음을 실천할 때에 고난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느낌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다. 둘째로 믿음은 교리에 지적으로 동감하는 것도 아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으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 (막 2:19) 믿음에도 분명히 지적인 면이 있으나 지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의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이 진짜라고 믿는 것에 근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의식적인 결정을 포함한다.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능력도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인간은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다. 어떤 가정(조진)에 근거한 믿음은 가짜이다. 믿음은 마치 삼키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것을 삼키면 죽는다. 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다.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능력은 하나님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눅 17:6; 롬 4:21)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고전 15:45, 47)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두번째 아담으로 사셨으며 매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다. (요 14:8~10)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것이다. (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먼저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요일 4:10, 19) 이 사랑과 은총은 완전한 용서와 의로움과 생명이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롬 5:17)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다. (요 15:5) 가지는 나무에 달려 있기만 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우리의 책임은 항상 의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율법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 6:6) 겉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것이지만 행복은 나의 모든 것들을 그의 손길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롬 12:1~2) 바울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릴 수 있었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개인적인 권리나 주장까지도 항복하며 감사할 수 있다.

믿음의 삶의 본질은 감사하는 심령에 있다. (살전 5:18) 감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가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실천의 표현이다. (롬 8:28) 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평화와 자유이다. (빌 4:6~7)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복종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평강과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다. (롬 8:38~39) 아멘.

CAST YOUR BURDEN UPON THE LORD

Cast your burden up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allow the righteous to be shaken.

(Psalm 55:22)

Instead of stressing out and worrying about problems and situations, just give your troubles to the Lord. Human life is burdensome because we live in a sinful world. From the time of the Fall people have carried burden after burden after overburden. There are physical, financial, emotional, political, religious, and so many kinds of burdens. Everyone has burdens! Jesus invites us to give our burdens to Him,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t. 11:28-30) This is a wonderful invitation! This is good news for burdened believers. Jesus will not only take our burdens, but He will give us peace. He will allow nothing to scare us.

What can you do with your burdens? You can stop trying to carry them! God longs to carry them for you. He keeps telling you to give them to Him but you keep holding on to them. By nature, we are all burdened by sin but we can call on Jesus. Jesus will save you, "And it shall be that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Acts 2:21) When the duties, responsibilities, and stress of daily life become overwhelming, you need to unload them on Jesus. Hebrews 4:15-16 say,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Therefore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Jesus knows everything about you and your life. He loves you. He wants to help you, "Therefore humble yourselves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that He may exalt you at the proper time,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Pet. 5:6-7) Please stop living this life on your own accord and start giving Jesus all, not some, but all of your anxieties. Remember, it is Jesus who carried our sins to the cross. It is Jesus who cares for you and me. To cast our burdens on God is to rest upon His providence and promise.

What will the Lord do with your burdens? He will take them all and sustain you by His love. What God lays on you, you lay right back on Him. 2Corinthians 5:21 says,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God takes our burden of sin; He takes our burden of sorrow; He takes our burden of grief and He

turns around and blesses us. He takes all the burdens of this life and in return gives you peace. He sustains the weak, "For while we were still helpless, at the right time Christ died for the ungodly." (Rom. 5:6) Whenever you are weak, God will take care of you and give you strength. If you will only give up your burdens to Him, He will give you peace and strength. Have you ever had this experience? If you boldly give yourself up to Him, releasing your charge and placing Him in full-charge, you will have immediate peace. If you really believe Jesus and give Him all your burdens, you will have immediate strength. If you have not had this experience, then you believe in yourself more than you believe in Jesus.

If you give the Lord your burdens, He will surely take them and bless you. Jesus died for you, and as a believer in Him you need to die to yourself. Please do not let your pride and weak faith deny you such an incredible opportunity and blessing. When the thief on the cross who was stressed, grieved and near death gave up his heavy load to Jesus, then Jesus released him. "And he was saying,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Your kingdom!' And He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2-43) He had a peaceful sleep. He is in heaven without a worry or care as I speak about him now. This terrible guy became a child of God. He who bore the burden of our sorrows desires us to leave with Him the burden of our cares. This is demonstrated in the cross and resurrection. If you completely rely on Jesus you will have this experience. A dying thief traded his doubt for faith, and his eternal destination from hell to heaven.

Why worry? The cross and resurrection prove God's all sufficient love. Those who rest in full faith in the immovable One will not be moved. Please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prove it by giving Him your burdens. Cast your burden on Christ right now. You will find His grace is sufficient for all your needs. He will forgive your sins and assure you of heaven. He will carry your burden and give you peace. I hope you will experience this wonderful blessing. Paul says, "And He has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Most gladly, therefore, I will rather boast about my weaknesses, so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dwell in me." (2Cor. 12:9) Do you really believe in the power of Christ?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22)



김성관 목사

어떤 문제나 상황을 놓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것들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무거운 짐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점점이 쌓인 짐에 짓눌려왔습니다.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정치적, 종교적인 짐 외에도 수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권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30)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신자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할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집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그 집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 짐들을 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그 짐들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짐들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짐을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행 2:21) 의무와 책임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 짓눌릴 때 그것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히브리서 4:15-16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6-7)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단지 몇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지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섭리와 약속 아래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어떻게 하시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짐들을 맡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짐을 다시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21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짐을 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짐을 짊어 지시고 그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 5:6) 여러분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며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지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맡긴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면 그 즉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 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맡기면 분명히 주님은 그 짐들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극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겼고 그 때 예수님은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42-43)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후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짐을 맡으신 예수님은 근심의 짐 또한 자신에게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간던 강도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꿨고 이로 인해 그의 영원한 목적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자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맡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여러분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

수요일예배 메시지(2008. 10. 1.)

현숙한 여인

(잠언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알겠느냐 그
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나라”(잠 31:10)는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은 세상의 보화에 비
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귀하다.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다.
친지를 창조하신 후 독처하는 아담을 잠들
게 하신 하나님은 그의 갈비뼈를 이용하여
하와를 창조하셨다.(창 2:22) 아담과 잠에
서 깨어난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내 뼈 중의 뼈와 살 중의 살이라”
(창 2:23)는 아담의 외침을 통해서 그의 기
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담의 기쁨이 되었던 하와는 사탄의 유혹
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아담과 함께 빠졌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신봉에 선 여인들이 많
이 등장한다. 북이스라엘왕국과 결혼한 이세벨이 대표적이다. 그녀는 북이스
라엘을 우상교로 물들게 만든 장본인이었으며, 그의 자손들도 남유다왕국에 치명타를
입혔다.(왕상 16:31~33, 21:25) 이세벨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그 미면에 악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좌악으로 몰아갈 악한 여인이 아닌 현숙한 여인이
필요하다.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믿을 수 있는 자다 현숙한 여인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을 꾀하지 아니하겠나”(잠 31:11) 현숙한 여인은 세상의 길을 걷지 않는다. 가정을
수호해 여기저기 남편과 자녀를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희생한다. “밤이 될 전에 일어나서
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잠
31:15) 보통 남자들은 일과시간에만 일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새벽부터 가족이 다 잠들
때까지 일한다. 의무를 넘어선 헌신과 희생은 현숙한 여인에게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게으르지 않으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몸
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기적이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기에 현숙한
여인은 믿을 수 있다.

손을 떠는 자다 현숙한 여인은 손을 편다. 손을 편다는 것은 공평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평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잠 31:20)
보통 여인들은 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쏟는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돌보는 데서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동등한 손을 편다. 자신, 자신의 가정을 위해
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분주하다. 자아의 실존적인 삶을 위해서 무리하게 해외유학
을 보내기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더 많은 힘을 쏟는다. 꾸미기 다마디(도르가)
처럼 말이다. 도르가는 자신의 이름대로 평생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행

9:36) 물론 도르가를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현숙한 여인으로 만드신 분은 주님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았기에 그녀에게 자신의 것은 없었다. 그는 선행
과 구제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감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지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소생하였다.(행 9:37,39) 손을 편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손을 내미셨던 것이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도움이 필
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민다.

준비되어 있는 자다 현숙한 여인은 준비되어 있다. 항상 준비되어 있기에 무슨 일을 당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기 보다는 웃을 수 있다.(잠
31:25) 이처럼 여유를 가지고 일하기에 현숙한 여인의 삶에는 웃음이 있다. “그 손의 알
마다 이렇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잠
31:31) 현숙한 여인은 명예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항상 미리 준비
하며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며 자연스레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을 열어 지혜를 배움과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잠 31:26) 현숙한 여인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고운 것도 거저되고 아플
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 31:30) 현숙한
여인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다. 세상의 것은 조금도 없다. 이것 때문에 현숙한 여인의
자녀와 남편은 진심으로 현숙한 여인을 어머니 또는 현숙한 아내에게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이
다.(잠 31:28) 여기에는 외식이나 조금의 가증함도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8,10) 현숙한 여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청결하다. 따
라서 현숙한 여인은 주 안에서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것이다. “내게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로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레 14:13)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오른팔에 서서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는 주님의 음성을
들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믿음에 기인한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현숙한 여인이 필요하다.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현숙한
여인은 믿을 수 있다. 또한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 모두 현숙한 여인
들 그리고 현숙한 성도들이 되자.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을 돌
아보며 사랑을 실천하자. 특히 총천연색의 장애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
랑의 손을 펴자. 사람에게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행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
뻐하시는 십자가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자. “한 피 마신 한 몸이 한 형제”인 몸같이 친
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존행하세.”(찬 220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39

* 매주 월요일까지도(사백 445)에서 성경만 읽을 줄을 수 있습니다.

딸의 병 고쳐 주기를

애원하는 이방여인

(7:24~30)

예수님은 이방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
셨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
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
다. 단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불
매 박해를 피하기 위함과 이방지역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셨던 것으로 추측한다.(막 7:1 ~ 례 13:31) 이처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는 이
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방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와 시돈에서 사는 이방인들이 예
수님께로 모여들었다.(막 3:8, 7:24)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밖에 있었던 이
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자로 믿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지를 고대했지만, 막상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알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오래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보이었다. 가버나움의 한 바보장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이나 간구하였을 때 중풍병에 걸
린 하인의 병이 치유되었다.(마 8:5~6, 13: 요 4:46,50)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자신들의 생각, 지존심,
명예만을 중시했으니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구할 뿐이었다. 어떤 아이치
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유대인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대로 행동하며,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은총의 자녀들은 다르다. 비록 예수님의 관심밖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이방인들도 그 중에 한 명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보았기 때문에 예
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의 치유를 간구했다.(막 7:25~26)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아니하리라”(막 7:27)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녀
는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 말했다. “주여 울소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끼
를 먹나이다”(막 7:28) 간절한 믿음의 간구에 예수님은 딸의 병고침을 선언하시고, 이방여인의
딸은 치유되었다.(막 7:29~30) 이방여인의 딸에게 일어난 기적의 원천은 믿음이었다. 이방여
인의 딸이 치유된 사건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통해 우리들의 초점을 병이 낫았
다는 사실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였던 믿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 절실한 것은 포악이 아니라 믿음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
15:24)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있어서 이방인들은 분명 복음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마 10:5~6), 베드로의 모습(행 11:2~10), 바울의 서신
(롬 15:8)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자. 예수님은 유
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
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에 전파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의 선인이 복음을 열망하고 그 열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
음을 이사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도 했다.(사 2:2~4)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선민들의 믿음을 요구하셨다. 인류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
주 단호한 믿음의 실천을 명명하셨다.(마 8:22 ~ 례 10:4) 복음의 가치를 버리고 복음에만 지
신을 고정하자. “내가 복음을 부르지위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의 모든 것은 자에게 구원을 주
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모든 자
손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자. 이때 이방여인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에게
납치된 바리새가 없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앞으로 나가지자. 주님이 찾아
주시길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은총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역에 임하기 전에는 선교에 많은 규제를 받을 줄 알았으나 주님은 우리들이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들만한 곳에서는 찬양을 하며 노방전도를 하였고, 삼청과 주택을 찾아 축조전도를 하였습니다.

사역 5월째가 되는 날에는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정탐을 마친 뒤 오후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축구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찬양을 가르치자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어느 성령님의 권유로 학교운동장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사 이미 예비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선교기간 중 밤에는 많은 비를 주셔서 시원하게 잠들게 하였고, 낮에는 맑고 쾌청한 날을 주셔서 무기임에도 선교에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재(집사, 23교구 7지역팀)

말씀, 믿음, 순종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외칠 때 그들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눌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알고있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하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길로 가게 해 달라고,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런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열심이 혹시 다른 사람의 눈에 걸림돌이 될까 하여 매순간 자기기를 부인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도 가지고 하여 들어가 봤더니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도지를 받아온 손이 화상을 입어 일그러져 있었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분이랄 생각이 들어 더욱 힘차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새삼 깨달으며, 더욱 더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굳건히 설 것을 기도합니다.

심민준(집사, 22교구 3지역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2일(월)~9월 30일(화)	1교구 5지역	구원섭
9월 25일(목)~10월 3일(금)	1교구 1지역	이승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9일(월)~10월 7일(화)	20교구 5지역	김기홍
9월 30일(화)~10월 7일(화)	14교구 9지역	최구근
10월 2일(목)~10월 9일(금)	5교구 1지역	김옥권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늦은 저녁 향풍기편으로 6시간 이상을 걸려 도착한 이곳의 시작은 새벽 2시! 공방 근처의 한 식당전를 귀퉁이에 있는 2층 방에서 도착예배를 드린 후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이 되어 선교지로 출발했다. 2시간여 동안 시골길을 자동차로 도착한 선교지의 하늘은 흐리다 못해 캄캄하다. 도착 후 숙소를 정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다 닿은 곳이 3층 건물에 1.2층에 노래방이 있는 허름한 호텔이었다.

오후 2시가 지나서야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에 들렀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들개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우리문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이어 흙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는데 생긴 그런 광경은 처음 보았다. 아마 태풍이 이보다는 조용할 것 같았다. 이런 폭우 속에 잠시만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젖어 사역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폭우는 식사시간 내내 유창하게 내려며 우리를 겁 주었다. ‘주여 오늘 전도사역은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끝인가? 저런 폭풍우 속에 절대로 밖에 못 나가요.’

식사가 끝난 후 모두 기운 없이 자동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팀장님이 ‘원래대로 빗속을 뚫고 그곳에 가서 합심기도를 드십시오!’라고 하자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하자!”고 답한다. 사역지로 향하자 폭우가 어느새 붉은 빗줄기로, 가랑비로, 부슬비로 변하여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주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하신 선교였다. 이처럼 우리는 불가능해가만 보인던 선교를 은혜 중에 마쳤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주님! 아니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거친 광풍에서도 간절하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도 내가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가 되어서 타지역에서 금지되어 있던 어린이사역을 이곳에서는 마음껏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쌍한 어린 영혼들에게 외친 그 말씀들이 그들의 가슴에 쫓겨나 버려져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그 마음속에 쏙이 나 예수님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 평생 사는 날까지 전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되뇌이면 서 조용히 주님을 향해 두 손 모아 눈을 감는다.

이정애(권사, 20교구 7지역팀)

플 무불의 뜨거움은 십자가 그늘입니다

팀원들마다 선교가가 어려운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선교였다. 이렇게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우리 팀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사역지로 향하였다. 온 몸이 땀으로 젖고 마르기를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하며 뜨거운 태양열과 더위에 지쳤지만 영혼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감히 우리가 어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나!’ 동정심이 아닌, 진정 영혼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평가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길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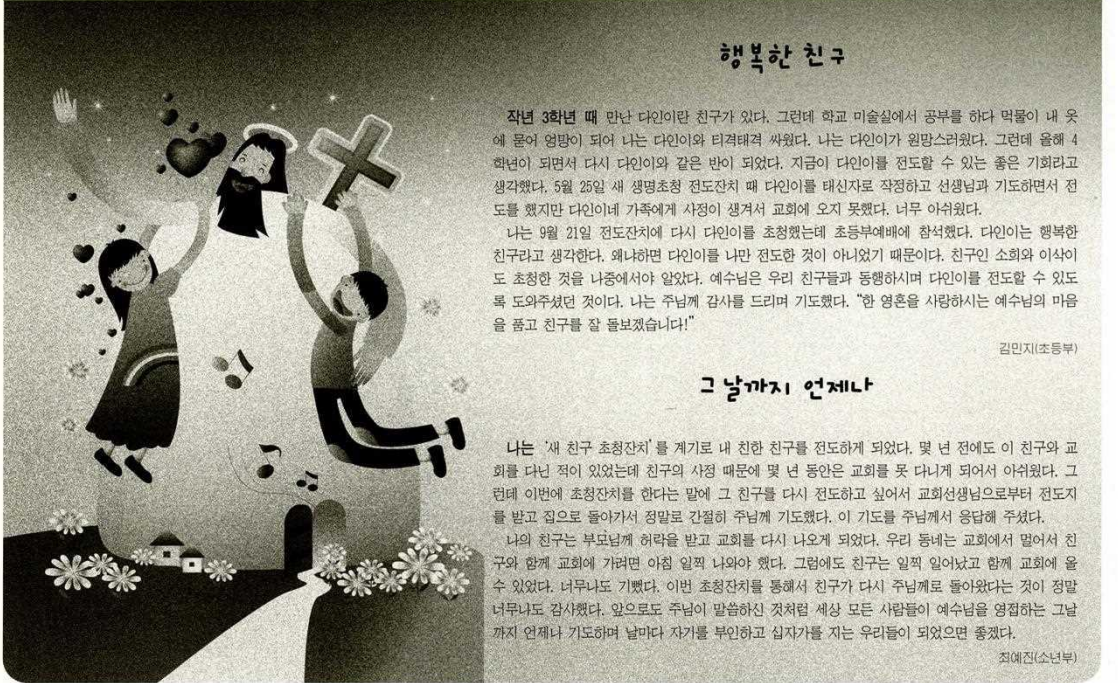
‘저 뜨거운 태양빛 아래 또 나가야 하나? 아! 무섭다!’ 매일 선교지의 날씨는 살이 익을 것 같이 뜨거웠고, 팀원들은 지쳤다. “순교를 각오하고 떠난 선교인데 이 더위에 지쳐서 네 몸을 아끼나? 무엇이 두렵나? 아직도 네 몸을 붙들고 아끼고 있느냐, 사랑을 두려워하느냐?” 더위에 지쳐있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 아직도 저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면 무엇을 못하랴!” 나는 회개하며 담대함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었고 이후로 플 무불의 뜨거움은 십자가 그늘이 되었다.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쉬었으면 할 때, 팀장님이 한 군데 더 가자고 하셨다. 그 곳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영혼이 있었다. 축복만 기다린 채 희망 없는 농동자를 하고 양산한 몸을 지탱하며 누워있던 한 영혼! 절망뿐이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국말로 영접기도를 시키자, 또렷또한 말로 따라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팀장님과 함께 병 낫기를 기도한 뒤 그분의 농동자가 맑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꿈속에서조차 그분을 보며 주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셨다.

남루하고 초라한 여인의 손목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영접기도를 할 때는 ‘세상에서 위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생애가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을까!’ 생각하며 수가성의 여인을 때를렸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재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우리들이 기뻐하시는 눈물이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해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시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다.

팀원들과 나는 사역평기와 기도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옆에서 세 계신 것을 보여 주셨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팀원들은 너무나 뜨거웠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 때문에 울었다. 살을 이킬 것 같은 뜨거운 적도의 태양열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곤 하셨다. 모든 선교사역에서 예수님이 대장 되시자 먼저 가서 만나 함께 예비시켜 주신 영혼을 만나 주님이 살아 계시는 세상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뿐이다.

정민선(집사, 12교구 2지역팀)



행복한 친구

작년 3학년 때 만난 다인이란 친구가 있다. 그런데 학교 미술실에서 공부를 하다 먹물이 내 옷에 묻어 엉망이 되어 나는 다인이와 티격태격 싸웠다. 나는 다인이가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올해 4학년이 되면서 다시 다인이와 같은 반이 되었다. 지금이 다인이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5월 25일 새 생명초청 전도잔치 때 다인이를 대신자로 작정하고 선행반과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지만 다인이에 가족에게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오지 못했다. 너무 아쉬웠다.

나는 9월 21일 전도잔치에 다시 다인이를 초청했는데 초등부예배에 참석했다. 다인이는 행복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인이를 나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친구인 소희와 이삭이도 초청한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시며 다인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다.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친구를 잘 돌보겠습니다!”

김진미(초등부)

그 날까지 언제나

나는 ‘새 친구 초청잔치’를 계기로 내 친한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다. 몇 년 전에도 이 친구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친구의 사정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교회를 못 다니게 되어서 아쉬웠다. 그런데 이번에 초청잔치를 한다는 말에 그 친구를 다시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선생님으로부터 전도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나의 친구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다. 우리 둘은 교회에서 멀어서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가려면 아침 일찍 나와야 했다. 그럼에도 친구는 일찍 일어났고 함께 교회에 올 수 있었다. 너무나도 기뻐다. 이번 초청잔치를 통해서 친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다.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기도하며 남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혜진(소년부)

빨간 수첩

매년 대심방을 받을 때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더욱더 성령충만한 생활을 원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삶은 세상일에 묻혀 항상 뒷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찬송과 함께 선교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전도할 용기가 생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예배와 집회 참석만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참된 기도와 봉사가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예배는 물론 장년부와 고교 모임에도 참석하여 말씀을 복습하고 예수하는 생활을 권하였고, 나조차도 주일찬양예배까지 참석하는 모습으로 변하였다. 나는 이 은혜를 우연히 만난 친구와 함께 나누며 그 친구에게 꼭 장년부에 참석할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나는 친구를 위하여 나의 빨간 수첩에 이름을 적어 놓고 기도를 하겠다고 했다.

선교를 다녀와서 만난 그 친구는 행복하게 변화된 모습이었다. 매주 장년부에 참석하며, 아이들도 여름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아با와 같이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드린다고 했다. 또 회사동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장년부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 나의 한 마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축복이며, 나는 그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만 전한 것뿐이라고 했다.

지금도 일곱 명으로 재조직 한참 수습이지만, 곧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을 뿔뿔히 채워 주실 것을 기도드린다. 나에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는 명령이기에, 말씀과 봉사로 순종하려고 한다. 아직 모든 면에서 미약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박경혜(집사, 13교구)

감사의 성찬식

지난 9월 첫째 주에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성찬식에 대한 주제로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생활 속에 성찬식을 대하는 저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은 구역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나쁜민이 아니라 온 구역식구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정말 얼마나 바치고 감사했는지 모르나, 주일 낮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금요찬양집회의 말씀을 통하여 가졌던 마음을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였고 두 달에 한 번씩 가지는 성찬식이 매년 다른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8년 1월 9일의 성찬식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1년 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남편이 지난해 12월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첫 성찬식에서 남편과 함께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을 간절히 원하였기에 너무나 감사했고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날을 같이 기념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하는 면면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김혜진(집사, 19교구)

영적 잠에서 깨어나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반가움을 더하는 얼굴들이 있다. 어느 사이에 훌쩍 커서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아이들과 이제는 직분을 받고 주님의 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몇몇 제제들이다. 나 역시 교구에서 일꾼으로,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처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탓에 늘 걱정 앞섰지만, 항상 기도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구역과 교회학교를 돌보며 가장 어려운 일은 새 생명 원인과 잡과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이었다.

어떤 이들은 오랜 기간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또 일부는 영육이 부족하여 주일성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부 아이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였다.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가치는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영적 장애이다. 이들의 고인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로 동역하는 일은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이 요구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때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녹아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그간의 수고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더 나아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삼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갈 6:9) 오늘도 봉사부서로 향하는 한 자매와의 만남이 내 마음을 기쁨으로 설레게 한다.

이정연(집사, 22교구)

새가족양육부 9월 수료자

죄 씻음의 증표 십자가!



♥ 어느 관사님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며 함께 해주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들어서 충성입니다. 이제는 걱정 근심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복남)

♥ 아들의 전도로 중언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더 담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찬송가를 부를 때 감격스럽습니다. (김성혜)

♥ 저는 시어머님의 권유로 나왔습니다. 믿음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오게 된 것은 제가 받은 큰 축복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저와 서투른 믿음에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믿음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외지가 생깁니다.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믿음생활하면서 은연로 풍성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밝은 눈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은주)

♥ 아는 사람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남성문)

♥ 어느 집사님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새가족양육부를 통해서 양육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생활을 통해서 사랑과 배려를 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박진강)

♥ 기존에도 신앙을 가졌고 유년시절부터 이미 중언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한남동에 있어 가까웠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많은

사랑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충효가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원)

♥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심을 느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성경말씀의 뜻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노인환)

♥ 예수님은 저의 곁에서 저를 사랑하시며 또한 제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원죄를 위하여 대신 보혈로 씻겨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더불어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희경)

♥ 예수님은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좋은 교우들과의 교제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제 저의 삶 가운데 주일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생활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예진)

♥ 교통사고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선배 형이 성도들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저를 고백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인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89	최신준	2	청년2부	
1690	정성애	2	청년2부	김정훈(24)
1691	곽민지	12	대학부	황순화(24)
1692	김영애	8	청년2부	
1693	장세현	4	청년1부	
1694	세재훈	25	외선부	정욱원(16)
1695	삼현	25	외선부	김진경(2)
1696	웃디	25	외선부	배종택(20)
1697	피씨샐	25	외선부	김진경(2)
1698	삼은	25	외선부	정욱원(16)
1699	소피다	25	외선부	배종택(20)
1700	잔씨나	25	외선부	김진경(2)
1701	민지애	25	외선부	
1702	최기연	20	청년2부	이성욱(20)
1703	김현정	20	청년2부	이경애(20)
1704	이은정	1	청년1부	홍현기(24)
1705	정원철	1	청년1부	
1706	김원희	1	청년1부	
1707	김광남	16	청년2부	
1708	서진원	1	청년1부	김연우(23)
1709	류광일	14	청년1부	강두형(24)
1710	박재성	22	대학부	
1711	노트바리	25	외선부	전드라(25)
1712	안광진	25	외선부	전드라(25)
1713	신영준	6	청년3부	이진규(6)
1714	신영현	6	청년1부	이진규(6)
1715	신현범	6	청년1부	이진규(6)
1716	김형진	11	청년1부	이진규(6)
1717	박연주	12	대학부	신정희(13)
1718	박석호	15	청년4부	서인숙(24)
1719	강혜경	23	청년1부	이성준(23)
1720	이은서	23	소년부	이성준(23)
1721	장동윤	20	청년2부	정 준(20)
1722	김선녀	22	청년1부	이미희(22)

* 중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 믿어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용서하게 되었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신경호)

♥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고 주일을 지킴으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믿음과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재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탁아부



유성태(장로, 탁아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 탁아부는 교회의 미래 주역이 될 어린 아이들의 신앙과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부서입니다. 1부는 8시 30분, 2부는 10시 10분에 교사기도회로 모여 80여 명의 선생님들이 기도와 돌봄으로 탁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1,2,3과로 나뉘어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편안히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탁아부가 되기 위해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위한 작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알도록

목 배려하며, 성경영산과 찬양과 율동 및 놀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갓난아기들은 1:1로 부모님과 같은 손길로 안아주시는 선생님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자녀나 손자·손녀들에게 하듯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많은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선생님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탁아부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안고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몰라 열려의 기도를 하시는 선생님들, 배

고픈 아이와 함께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여 주고 아이들의 배변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깨끗하게 닦아 주면서 속리도 아픈 곳이 있는지 살펴며 찬양과 기도로 아이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탁아부는 깨끗한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환경개선 및 청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주 긴밀한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어 좀더 나은 중언교회의 든든한 귀퉁이 부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저귀 및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구비치를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이 탁아부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며 부모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간식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음식들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요찬양집회 때에도 부모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탁아부에서는 집회시간 내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청치기후원 때에도 탁아부의 모든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부모님들이 온전한 하늘의 청치기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봉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탁아부에서 함께 뛰놀고 지냈던 아이들이 유년부·초등부·소년부·중등부로 올라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자라 중언교회의 복음기둥이 되어가고 있구나 느낍니다. "선생님!"하고 달려와 인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절끈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낮은 자를 찾으시며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탁아부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